

역사를
끌어안은

빛의
숲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권경은

전 우규승 건축사무소 소장
현 오피스 경 소장

개요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26번길 7
용도	문화시설,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박물관
대지면적	96,036㎡
건축면적	21,314㎡
연면적	143,840㎡
규모	지상 4층, 지하 4층
구조	PC 콘크리트, RC, 철골조복합구조
설계	우규승 건축사무소
시공	대림산업
건축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경



아시아문화광장의
동북쪽 끝은
기존 도심 도로에 연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항쟁과 관련된
건축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시설을
지하에 위치시키고 상부는 공원과 광장으로 형성하였다.
‘빛의 숲’은 이러한 도시 구조의 단면적 재형성을 통해
이 대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의도되었다.

지표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이 되고,
도청과 경찰청 일대는 전당 자체보다도 자연스럽게 높게 되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영역 자체가 ‘기념비’가 된다.





- 상 어린이문화원은 유일하게
지상부로 노출되어 있어 강한
개방감을 준다.
- 하 대극장 앞의 보행전용 브리지는
기존 도심 도로(서석로)를
전환한 것으로,
지상에서 광장을 가로지르는
경험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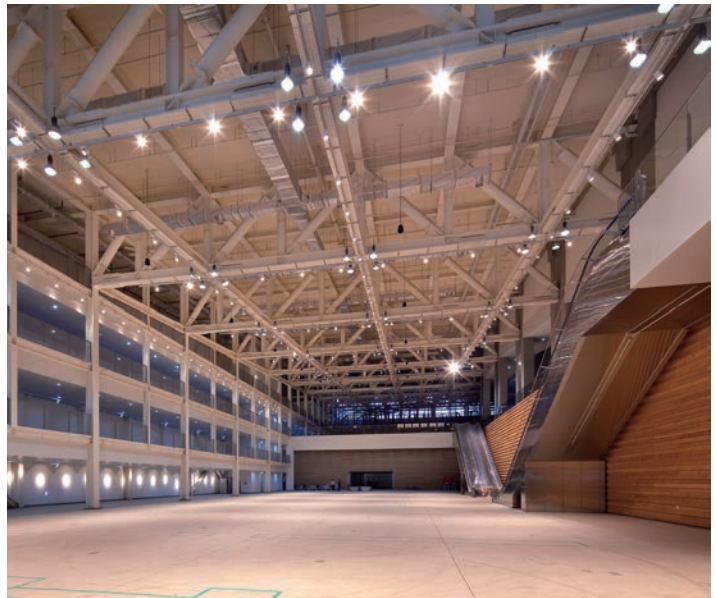
© 2014
P&P
건축



© 和 順 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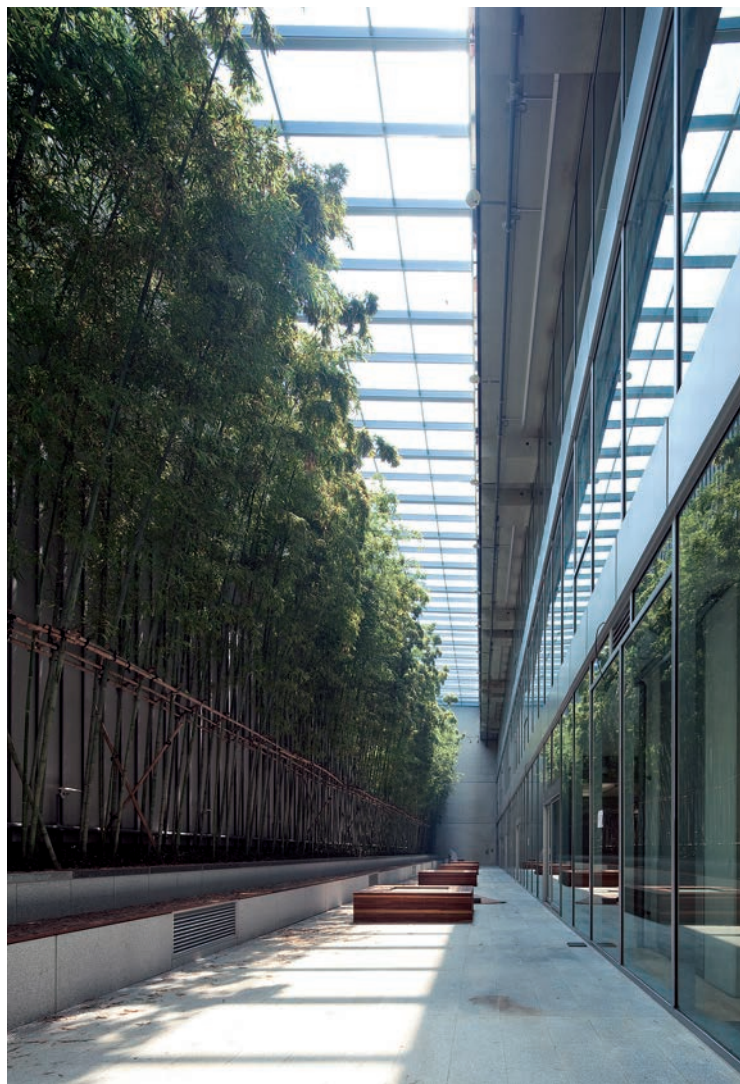
© 和 順 堂



© 和 順 堂

- 상 4m의 주복도는 내부에서
아시아문화광장을
면해 각 시설을 연결한다.
- 하 복합 전시관 내부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 등을 통해
유연한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의 선형 대나무 정원은
일종의 아트리움으로
내부경관을 제공하고
주광을 끌어들이 지하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한 공간이다.



© 2018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 역할을 하는 대나무숲

익숙하지 않은 풍경

2005년, 옛 전남도청과 그 일대에 거대 문화시설이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그 이미지가 기존 문화시설들처럼 장대한 조형성을 갖는 모습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 11월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방문자를 맞이하는 풍경은 4만여 평의 시설이라는 통념이 제시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금남로의 끝에서 방문자들은 건물이 아닌 광장과 공원을 먼저 만나게 된다. 거대한 시설의 위용과 긴장감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이곳은 평화롭고 조용하며 산책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다가온다. 동서남측의 도로에 면한 공원으로 형성된 영역을 거닐면서 방문자는 대지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남경찰청을 볼 수 있다.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가면 공원의 경계부에 도달하고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형성된, 마치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진 발아래 계곡의 모습을 보게 된다. 새로운 시설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선큰광장의 주변이 방문자가 산책 중인 공원의 하부에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풍경으로 경험되는 과거

테크놀로지에 힘입은 새로운 유형의 문화시설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모델로 시험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4만여 평의 규모에 전시·공연·교육 등 문화의 연구·생산·소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기획되었다. 또한 대규모 문화시설이지만 선택된 대지인 '5·18민주항쟁의 현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다. 2005년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우규승 건축사무소의 '빛의 숲'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시 구조의 재편성을 통해 제시하였다. 옛 전남도청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문화시설을 그 주변부에 계획하되,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에 의해 역사적인 건물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청과 경찰청 주변으로 대지를 파고 지표 아래 모든 시설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빛의 숲에서 지표는 모든 시민들에게 열린 공원이 되고, 도청과 경찰청 일대는 전당 자체보다도 자연스럽게 높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부각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영역 자체가 기념비가 된다.

© 2015
NAC



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경
하 기존 도심 도로에 연결되는 아시아문화광장



광장의 입면전개도

5·18광장에는 상부 공원에서 볼 수 있던 선큰광장으로 연결되는 넓은 경사로가 있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의 사이에 형성된 이 경사로는 게이트의 역할을 하면서 선큰광장과 연결되고, 지하2층의 높이에 해당하는 레벨에서 광장은 좌측으로 이어지며 완만한 경사로 다시 대지 깊숙한 곳으로 사람들을 유도한다.

이 지점에서 빛의 숲이 의도한 전당만의 위엄과 시선을 경험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5·18민주항쟁의 시설과 광주 도심 배경으로 광장과 방문자들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의 기준으로 보자면 3개 층 정도의 높이에 지나지 않는 새 시설의 입면에 둘러싸인 광장은 다시 서쪽 끝에서 북쪽으로 꺾이며 연속된다. 그리고 북측의 끝에서 다시 자연스럽게 신서석로와 연결되는 순환 동선이 되며, 시민에게 열린 광장이 된다.

아시아문화광장이라 명명된 이 광장은 평균 폭 60m, 총연장 약 600m로 'U'자형을 형성하며 기존 도심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시설 내부와 내밀한 위계를 동시에 갖는 전당 공간 조직의 중심이 된다. 이 광장을 따라 걷다 보면 단계적으로 각 시설로 진입하게 되는 주된 입면부, 주출입구들과 연결되어 내부 활동이 광장에 투영된다.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풍경

광장으로 면한 입면부에 위치한 주복도는 각 시설을 내부에서 연결하는 동선이자 광장의 활동, 그리고 그 너머 5·18민주항쟁의 기억, 내부 공간의 활동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복도는 교육·연구 시설과 전시 시설로 이어지며 대지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공연장까지 연결된다.

새로운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성격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내부 시설은 건축물의 긴 수명과 함께 테크놀로지의 진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유동적인 구성을 필요로 하였다. 내부 시설의 상당 부분은 장스팬의 PC 구조가 그 인상을 지배하는데, 이 구조로 인해 내부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른 실의 재구획이 용이하다. 이는 설계 과정에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슬래브 복사 냉난방 등 친환경 시스템의 활용과 함께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 생산의 장소’라는 시설의 성격과도 부합하는 내부 풍경을 만들어 낸다.



- 상 유일하게 지상부로 노출되어 개방감을 주는 어린이문화원
- 중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 역할을 하는 대나무숲
- 하 복합 전시관의 스캐폴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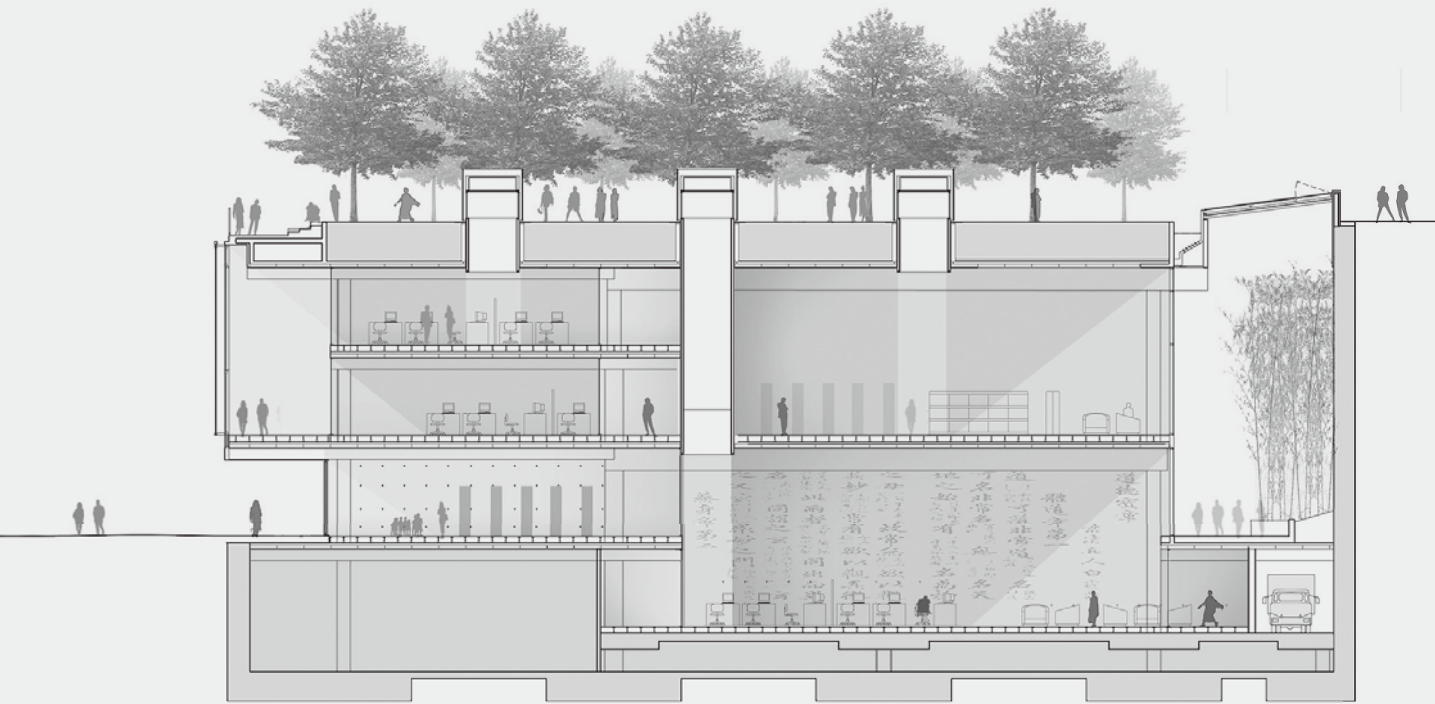
주동선 체계와 다소 분리된 어린이문화원은 전체 영역을 관통하는 평지라는 개념과 달리 지상부로 완만히 돌출되어 지상에서도 쉽게 인지가 된다. 현상설계에서는 다른 부분과 같이 완전히 지하에 위치해 있던 시설이지만, 현상설계 직후 랜드마크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반영하여 일부 지상으로 돌출시킨 부분 중 하나이다. 투명성의 개념이 잘 구현된 시스템인 케이블 넷으로 처리된 이 매스는 내부의 활동이 외부로 투영되며 밝은 시설로 완성되었고, 지면의 하부와 상부의 변화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내부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이곳은 아이들의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가에 의해 '집 속의 집'이라는 개념으로 내부 전시 방식이 제안되어 어린이의 스케일로 분절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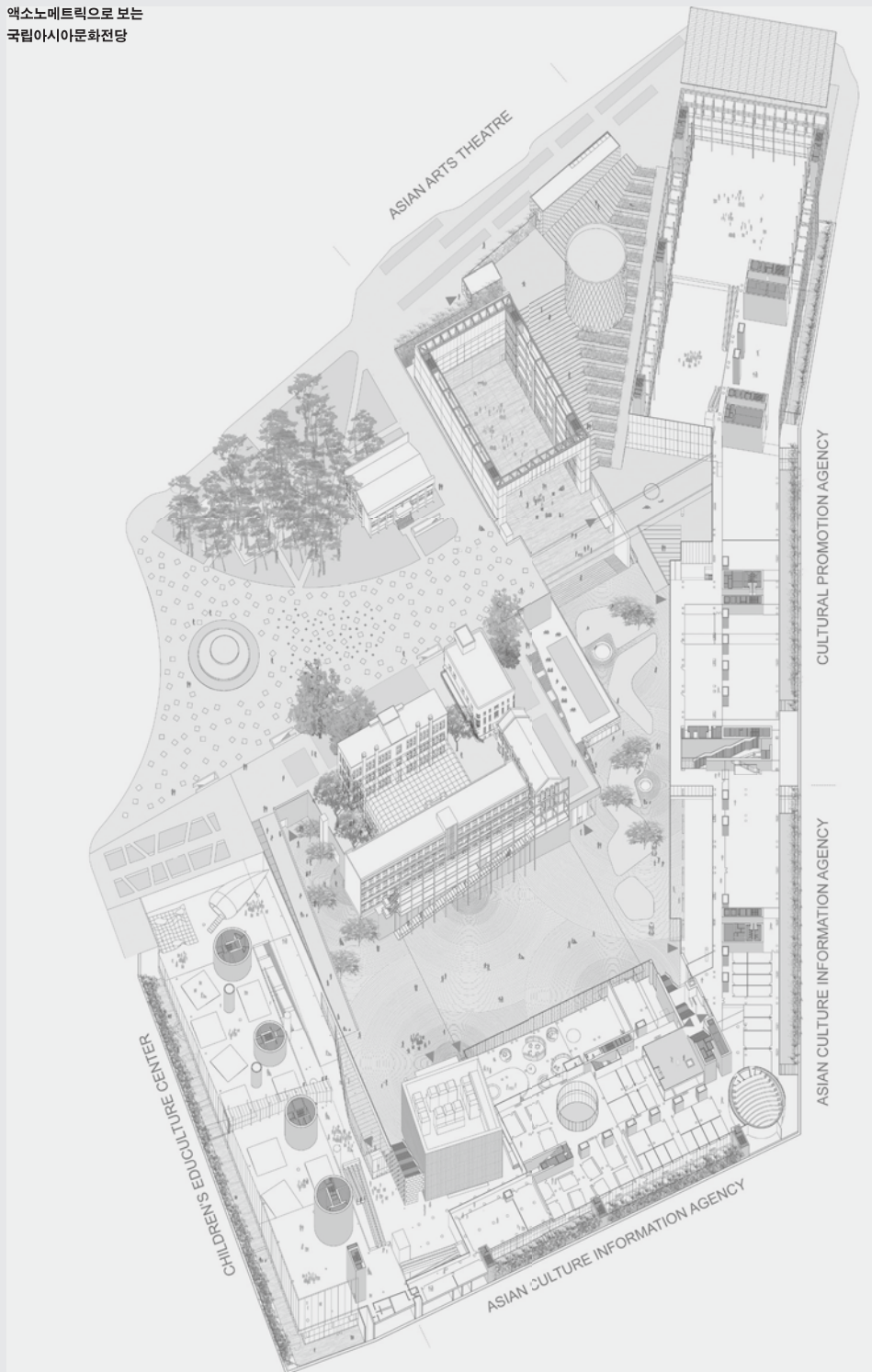
아시아문화광장과 복합 전시관, 예술극장의 스캐폴딩 구조물 역시 열린 가능성을 수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사용에 따른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제안이다. 이러한 구조의 공간들은 공사 완료 후 다른 건축가들의 실내 작업을 유연하게 수용하며 의도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문화광장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대극장은 이러한 공간의 유연한 사용이 내외의 연결이라는 직접적인 활용으로 발전된 공간이다. 거대한 유리문이 열리면 극장 앞 광장은 하나의 공연 공간으로 활용된다.

빛의 숲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대지 내 곳곳에서 5·18의 흔적을 조망하여 기념비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를 일상, 문화적 경험과 연계하려 하였다. 그 의도가 잘 드러난 공간이 전당 상부에 조성된 공원이자, 이 시민공원은 고밀도의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거대한 스케일의 건축물을 부각시켜 존재를 과시하기보다 민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수평의 대지가 새로운 도시 풍경을 만들어 내도록 하였다. 전당의 지붕이기도 한 이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 공간, 느티나무 수림대, 다목적 이벤트 광장, 계단식 광장 등 하부의 각 시설에 대응하면서도 녹지가 조성된 조경 공간이 계획되었다. 시민공원의 느티나무를 주수종으로 하여 이 지역의 상징적 수종인 대나무와 은행나무 등 다양한 식재들이 시민들과 사용자에게 풍부한 외부 공간을 제공한다.

PC 구조와 주광의 유입,
개방된 입면 등은 '빛의 숲'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빛의 숲은 이러한 일상적 자연에다 빛을 더하여 이 장소에 대한 상징과 기념비성을 갖도록 하였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빛은 빛고을 광주의 이미지, 민주의 이념과 상통하는 투명성의 개념이다. 아울러 천창을 중심으로 한 야간의 빛은 숲과 함께 전당 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내·외부의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 기능을 하게 된다. 자연광은 중심·주변부의 공간적 조직을 강화하고 공원에서 광장으로의 연결을 암시한다.

빛은 가장자리로부터 내부 공간까지 대지의 경계를 형성하는 대나무 정원과 계단식 광장을 면한 입면을 통해 스며든다. 상부 공원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2m×2m의 천창은 주광을 건물 내부 깊숙이 끌어들이고, 야간에는 공원의 랜턴으로 작용하여 빛의 숲이 연출된다. 대지 경계를 따라 형성되는 폭 8m, 높이 12m의 대나무 정원은 한국 전통 건축의 후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며 인접한 시설에 따라 건물 내부 깊은 곳에서 외부 공간을 형성하거나 실내 정원이 되어 사용자들의 휴식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익숙한 일상의 풍경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가장 큰 장점은 10년 전 주변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 5·18민주항쟁의 시설들이 인지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지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 중심성이 강화되었다는 작은 차이가 있고, 더 큰 차이라면 근현대를 거치며 풍부하지만 어지러운 도시 조직 안에 있던 5·18 관련 건물들이 이제 평화롭고 사색을 할 수 있는 너른 공원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거운 추모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가깝게 시민에게 다가와 있고 조금 더 극적인 방식으로 지난 과거를 기억하게 한다. 아 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광장과 여름 뜨거운 햇볕을 가려 줄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문화전당을 방문하는 이들은 5·18의 사건을 배경 삼아 문화를 향유하게 된다.



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전
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 직후